

선교사가 되기까지의 여정

- 이재환 선교사 / 2003. 4.18 -

저의 지난 삶을 회고해볼 때 선교사가 됐다는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선교는 무섭고 힘들고 가능한 한 피할 수 있으면 피하려고 노력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가 된 저의 삶은 최고의 기쁨을 가지는 사역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골 농촌 출신이고 아버지는 농부였지요.

어머니는 샅바늘질을 해서 자수성가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늦게 유교집안에서 불교 집안으로 시집을 오셔서 “대 혁명”을 일으키셨지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지요. 아버지는 교회에 다녀오신 어머니의 성경을 마당에 던져 벌리기도 했지요. 우리 집안에 고모와 어머니가 유일한 신자였지요. 모두가 술독에 빠져 있는 전통적 술에 익은 가족들의 집단이었지요. 아버지도 물론 그 중에 한 분 이셨구요. 저도 이런 속에서 자동적으로 술을 배웠고 술가족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어머니는 꾸준히 주님을 섬기며 경건한 삶을 사셨습니다. 농사를 짓는 어려움 속에서도 새벽 4시의 새벽 기도를 멈추지 않고 식구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셨지요. 아버지가 구원을 마지막으로 온 식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의 어머니의 기도중의 가장 중요한 기도는 ‘첫 아들의 헌신’이었지요. 당연히 어머니는 첫 아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여겼고 목사가 되기를, 그분은 “주의 종”이라고 부르고 저를 바친 것입니다. 물론 저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은 선교사의 설교를 들으시고 기도 제목이 “선교사”로 변했지요. 제가 선교사가 되도록 기도를 바꾸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선교사가 된 가장 중요한 영적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15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의 부름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을 듣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음성은 “너는 내 종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의 그 음성을 듣고 저는 “절대로 주의 일꾼이 안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난한 목사가 되기 싫었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저는 결국 술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급기야는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병명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수혈을 두 번이나 받는 중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약 10개월간의 병상생활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퇴원 후 대학 생활의 4년은 선교를 위한 준비기간이 되었고 졸업 후 신학교에 입학하여 신학을 하고 1982년 아프리카를 향하여 떠나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WEC International 이라는 단체의 도움으로 선교의 바른 입문을 공부하게 되었는데, 그들로부터 정말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고 많은 실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나의 선교의 위치가 매우 흔들렸을 것입니다. 총신대학에서 신학을 정립했다면, WEC에서는 선교신학과 실전을 배울 수 가 있었습니다.

그 곳에서 나는 나이지리아를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는 문이 굳게 닫혀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래 기다리다가 감비아에서 사역하던 로즈메리라는 스위스 여성교사를 만나게 되고 감비아의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1984년 5월1일 우리는 두 번째의 아프리카 땅을 밟게 됩니다. 첫 번은 북아프리카 튀니지를 선교지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정탐여행을 다녀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물론 북아프리카는 실제로는 아프리카로 인정하지 않고 중동으로 인정하지만

WEC 선교부의 따뜻한 영접을 받으며 감비아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노하우를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특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나는 선교를 바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의 역사가 짧기 때문입니다. 문화 이해도 못했고 언어도 시원치 않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언어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파송한 교회조차 선교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떠나보내게 되므로 어떻게 선교사를 관리해야 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단 한 교회의 파송을 받은 우리는 그 한 교회가 어려움을 겪자 경제적인 후원이 막혀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서양 선교단체로부터 엄청난 선교의 중요한 경제원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Faith Mission"이라는 것이었습니다. "Faith Mission"이란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의 선교로써 사람들에게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분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그것이 그들에게서 배운 최고의 선교재산이었습니다.

지난 선교20년은 녹10장 4절이나 마 10장 10절을 이해하는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교사의 축복된 사역 속에서 선교에 가진 하나님의 비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의 그 의의를 정말 깊이 깨달으며 사역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기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모든 성도, 모든 교회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선교는 피해야 할 사역이 아니라 우리가 온 믿음으로 붙들어야 할 영광스러운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